산업통상자원부 http://www.motie.go.kr	**보도참고자료**	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뉴딜

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배포일시	2021. 12. 23.(목)	담당부서	석유산업과
담당과장	박덕열 과장(044-203-5220)	담 당 자	권 준 사무관(044-203-5223)

정부, 317만 배럴 규모 비축유 방출시행

- '22.1월~3월, 약 3개월간 순차적으로 방출 -

- 원유 208만 배럴 대여, 석유제품 109만 배럴 입찰·판매 -

□ 정부는 12.23(목) 총 317만 배럴 규모*의 정부비축유** 방출계획을 발표함

* '11년 리비아사태 당시 방출 물량인 346.7만 배럴 규모와 유사한 수준

** 現 정부 비축유는 9,700만 배럴 수준으로, IEA 기준 약 106일 지속가능한 물량

○ 지난 11.23(화) 미국을 비롯한 **동맹국간 비축유 공동방출에 동참하기로 결정**한 이후, **국내 정유사 등과의 협의** 및 **정부 석유비축계획에 따른 판매 예정물량**을 고려하고, 비축유 공동방출을 제안한 **미 측과 협의를 거쳐 최종 결정함**

○ **방출물량인 317만 배럴**은 **정부 비축유 9,700만 배럴 중 약 3.3%에 해당**하여, 잔여 비축물량으로도 **약 103일 지속 가능**해 향후 돌발적인 **석유수급 위기 발생 시에도 대응능력은 충분**할 것으로 전망됨

□ 금번 방출은 **'22.1월부터 3월까지 약 3개월 간*** 정유사별 생산계획 등에 따라 **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**으로,

* 단, 기업별 생산계획 일정에 따라 '22.4월까지 일부 지연될 가능성도 있음

○ **원유 208만 배럴**은 **1년 이내 대여방식을 통해 국내 정유사로 방출**하고, **판매 예정인 석유제품**(등유, 프로판) **109만 배럴**은 **입찰방식**을 거쳐 **최고가 낙찰기업에게 방출하는 방식**으로 진행될 계획임

○ **방출절차**는 **원유**의 경우 **한국석유공사가 국내 정유사들과 금년말까지 대여 계약을 각각 체결**하고, **제품**의 경우 **연내 입찰 공고할 예정**으로, 입찰 관련 자세한 사항은 공사 홈페이지(www.knoc.co.kr)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음

□ **금번 비축유 방출**은 **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, 일본, 인도, 중국 등 동맹국**들이 급격하게 상승한 국제유가에 따라, **유가 안정을 위한 국제 공조 필요성 등 인식을 공유**하고, 세계 주요 **석유소비국들이 연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했다는 데에 무엇보다 큰 의의**가 있음

○ 특히, **최근 국제유가**는 **동맹국간 비축유 방출결정**(11.23)이 예상됨에 따라, **11월 초부터 일정 수준 하락**하였으며,

* (10.4주) 85.13$/B → (11.1주) 82.94$/B → (11.2주) 83.18$/B → (11.3주) 80.98$/B (브렌트유)

○ **오미크론 출현**(11.26), **OPEC+ 증산 기조 유지**(12.2) 등 영향이 더해져 보다 **안정적인 추세***를 보이고 있음

* (11.4주) 79.84$/B → (12.1주) 70.49$/B → (12.2주) 74.78$/B → (12.3주) 74.10$/B (브렌트유)

□ **산업부 박기영 2차관**은 "금번 방출 이후에도 **국제유가를 면밀히 모니터링할 예정**"이라고 언급하며,

○ "금번 방출은 유가 외에도 **겨울철 잦은 기상악화**로 인한 **정유사 수급 불안 등을 사전 해소**함과 동시에, **동절기 수요가 많은 등유·프로판을 혼합 방출**함으로써, 일시적인 **석유제품 수급차질 발생 우려**를 **미연에 방지하는 효과**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"고 언급함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석유산업과 권준 사무관(☎ 044-203-5223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